

●●● 박현출 신임 축산국장

주인의식을 갖고 준비하는 양계인이 되자



▲ 박현출

- 56년 전남 무안생
- 80년 단국대학교 법대졸, 대학원 졸(82)
- 89년 스페인 Universidad de Complutense 수료
- 82년 행정고시 25회, 양정과, 농업구조정책과(사무관)
- 94년 농업구조정책과 서기관
- 97년 무역진흥과장, 국무조정실 파견, 협동조합과장
- 99년 유통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과장
- 03년 농업정보통계관, 중앙공무원교육원(훈련) 파견
- 04년 축산국장
- ▷ 포상 : 대통령표창(1991), 홍조근정훈장(2002)

정부는 지난 12월 10일자로 농림부 축산국장에 박현출 부이사관을 발령했다. 신임 박현출 축산국장은 56년 무안에서 태어나 목포고등학교와 단국대 법학과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1982년 농림부에 첫발을 내디딘 후 무역진흥과장, 협동조합과장, 유통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농업정보통계관을 지내오다 신임 축산국장에 발령되었다.

본고는 지난 12월 15일 농림부 축산국장실에서 신임 박현출 국장을 만나 앞으로의 양계업 문제와 정책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편집자주-

Q 취임노감은?

최근 농업이 국제적으로 FTA, DDA협상 등 개방화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웰빙을 지향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지는 등 중요한 시점에서 축산국장직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든 산업이 도약을 해야 하는 만큼 축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양계산업 형태변형은?

현재 양계업의 당면 문제 등을 보면 유통, 질병, 수입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 등과 협의 기회를 자주 가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집결된 의견을 모아 양계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번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21개 시군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 예찰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과거의 어려웠던 때를 항상 잊지 마시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계산업의 안정이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물량조절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종계장 DB구축이 좋은 예이며, 금년에 완료되는 모든 양계장의 등록과 연계하여 모든 양계산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하겠습니다. 양계인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Q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다행히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닭고기 등 양계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항상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을 최대한 막아보겠으나 국제 규정과 개방화 일정에 따라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외국 양계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양계시설을 바탕으로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하여 국내 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닭고기의 경우 도계장 위주로 HACCP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분야 뿐만 아니라 사료 등 원료분야, 모든 유통분야까지 HACCP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Q 닭의 해 양계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

양계인들에게 2004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을유년(乙酉年) 닭의 해에는 양계업계에 큰 발전과 좋은 결실이 많았으면 합니다.

양계농가 모든 분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 바라며, 정부에 바라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계분야에서는 양계협회와 함께 계육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모든 단체들은 양계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양계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 품목별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반 속에 정부에서는 그 사업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김동진 팀장) 양계